

## 【 주간이슈 】

## FY2009 손해보험산업의 경영성과 분석 및 과제

김대환 부연구위원, 최원 선임연구원, 최이섭 연구원

□ FY2009에도 장기보험이 전체 손해보험시장의 성장을 주도하였으나, 장기보험성장세가 둔화될 가능성이 나타나고 있음.

- 손해보험 원수보험료 중 장기보험이 차지하는 비중이 역대 가장 높은 53.2%를 기록하였으며, 성장률도 23.4%를 보이며 전체 손해보험시장 성장의 원동력으로 작용함.
- 그러나 FY2009 중반을 기점으로 초회보험료 증가세가 크게 둔화되면서 과거 신규수요 확대를 기반으로 한 안정적인 성장은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보임.
- 자동차보험과 일반손해보험의 성장률은 전년대비 각각 2.6%, 8.7%에 그치며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지는 못함.
- 퇴직연금시장은 144.4% 고성장 했으나, 손해보험회사의 점유율은 오히려 감소함.

□ 당기순이익은 보험영업이익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투자영업이익 증가에 힘입어 1조 5,414억원의 흑자를 시현함.

- 비용증가에 따른 실적 악화로 적자를 보인 보험영업 부문과 달리, 투자영업 부분은 비용감소로 투자영업이익이 크게 증가해 금융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함.

□ 손해보험시장의 성장 요인들이 내용면에서 과거와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 만큼 손해보험회사는 장기적인 성장성 제고를 위해 이전과 차별화된 경영전략의 마련이 요구됨.

- 손해보험의 장기보험 집중화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장기보험의 안정적 성장 유도과 더불어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종목의 다양화가 필요함.
- 퇴직연금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시장을 세분화하고 특정 시장에서 전문성과 영업력을 제고시키는 전략이 요구됨.
- 일부 보험시장이 정체되고 저금리기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는 보험영업 및 투자영업에서 비용측면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함.
- 수익창출을 위해 투자영업의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안정적으로 투자수익률을 개선시킬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됨.

## 1. 논의배경

- FY2009 손해보험시장은 금융위기 이후 본격적인 경기회복 및 장기보험의 수요 급증으로 16.9%의 고성장을 시현하였으나, 내용면에서는 금융위기 이전과는 다른 양상을 보임.
  - 과거에 비해 장기보험의 비중 증가 추세가 더욱 확대된 반면, 자동차보험 및 일반손해보험은 비중 축소 추세가 지속됨.
  - 하지만 장기보험시장이 크게 둔화될 가능성이 나타나고 있는 등 손해보험시장의 성장 요인들이 내용면에서 과거와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음.
  
- 수익성 측면에서는 보험영업의 성과가 악화된 상황에서 투자영업이익이 이를 보전하는 현상이 고착화되어 가고 있음.
  - 투자영업이익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보험영업이익은 지속적인 적자를 기록하고 있어 보험영업이익의 보전 방법과 투자영업이익의 안정적 유지를 위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임.
  - 투자영업도 수입보험료의 증대가 운용자산 규모 및 투자이익 증대로 연계되던 과거와 다른 모습들이 나타남.
  
- 이에 본고는 FY2009 손해보험회사의 보험영업과 투자영업에 대한 특징적 사항을 세부적으로 살펴보고, 손해보험회사의 장기적인 지속성장을 위한 경영전략을 도출해 보고자 함.
  - 보험영업성과를 원수보험료, 사업비, 손해율 등으로 구분하여 과거 실적과 비교·분석함과 동시에 이들이 가지는 특징적인 사항을 경영전략에 접목시키는 작업을 시도함.
  - 투자영업성과도 수익과 비용 측면에서 변동된 사항을 과거와 비교하여 새로운 패턴을 살펴볼 필요가 있음.
  - 보험영업과 투자영업에서 새로운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만큼 손해보험의 지속적인 성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과거와는 차별화된 경영전략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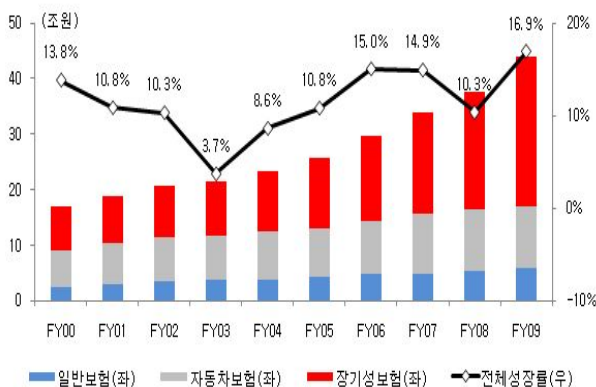
## 2. 보험영업 성과

### 가. 원수보험료

□ FY2009 손해보험산업은 43조 8,323억원의 원수보험료 실적을 기록해 지난 10년간 가장 높은 16.9%의 성장률을 시현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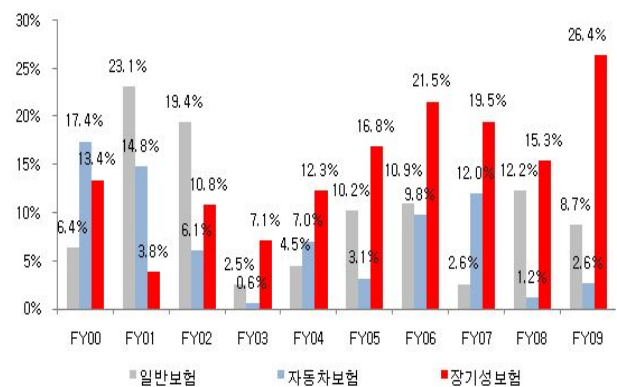
- 금융위기로 인해 다소 둔화되었던 성장추세가 본격적인 경기회복과 맞물려 빠르게 회복함.
- 특히, 장기성보험<sup>1)</sup>은 전년대비 26.4% 성장하여 FY2000 이후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손해보험시장의 성장을 견인함.
- 반면, 자동차보험과 일반손해보험의 성장률은 전년대비 각각 2.6%, 8.7%에 머물러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지는 못한 것으로 나타남.

<그림 1> 원수보험료 규모 및 성장률 추이



자료: 손해보험회사, 『업무보고서』, 각 월호

<그림 2> 종목별 성장률 추이



자료: 손해보험회사, 『업무보고서』, 각 월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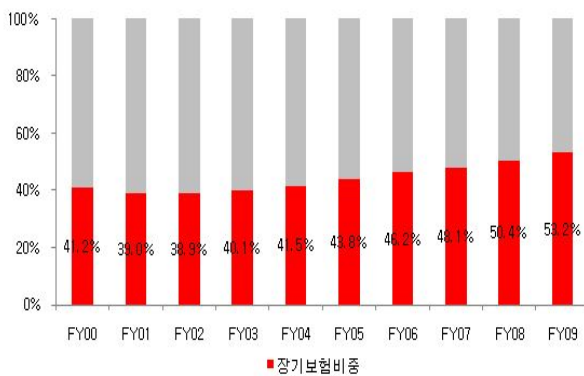
□ 손해보험시장의 주요 성장 동력인 장기보험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, 최근 장기보험 성장은 과거와는 다른 특징을 보이고 있음.

- 수입보험료 규모뿐만 아니라 성장률 측면에서도 장기보험은 자동차보험 및 일반손해보험의 성장률을 크게 상회하면서 전체 원수보험료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역대 가장 높은 53.2% 수준까지 증가함.

1) 장기보험, 개인연금, 퇴직보험 및 퇴직연금을 말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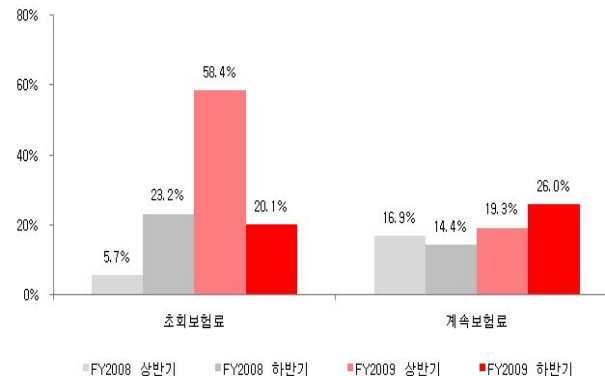
- 계속보험료는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지만, FY2009 중반을 기점으로 초회보험료 증가세는 크게 둔화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당분간 신규수요 확대를 기반으로 한 장기보험의 안정적인 성장은 어려울 것으로 분석됨.
- 이러한 장기보험의 성장 추세는 2009년 10월 실손의료보험의 상품표준화 이전에 가입하려는 대기 수요자가 급증한 이후 잠재수요자가 소진되어 발생한 현상으로 풀이됨.
- 다만, 실손의료보험 가입률은 여전히 33.8% 수준<sup>2)</sup>에 불과하여 초회보험료의 급감현상이 일시적일 수 있음.

<그림 3> 장기보험 비중 변화 추이



자료: 손해보험회사, 『업무보고서』, 각 월호

<그림 4> 초회 및 계속보험료 성장률 추이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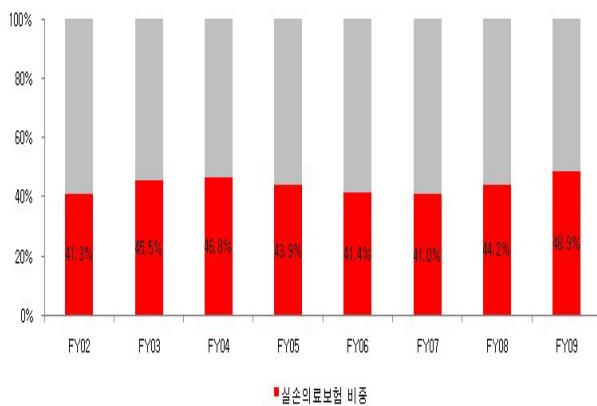
자료: 손해보험회사, 『업무보고서』, 각 월호

□ 장기보험 및 전체 손해보험의 성장세는 경기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고 있는데, 이는 실손의료보험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됨.

- 장기보험에서 실손의료보험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, 증가율도 전년대비 36.5%를 기록함.
- 경기변동에 따른 건강보험의 수요탄력성이 높지 않음을 감안할 때, 실손의료보험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장기보험 및 손해보험의 성장률 변동성이 경기변동에 상관없이 안정적인 것으로 평가됨.
- 금융위기의 영향에도 실손의료보험의 성장률 변동성은 낮았으며, 장기보험 및 전체 손해보험 성장률 하락도 크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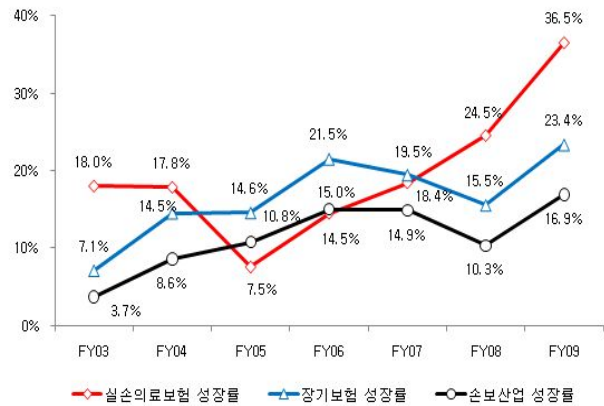
2) 보험연구원 설문조사(2010.4)에 기반을 둠.

<그림 5> 장기보험 중 실손의료보험 비중 변화 추이



자료: 손해보험회사, 『업무보고서』, 각 월호

<그림 6> 실손의료보험 성장률 추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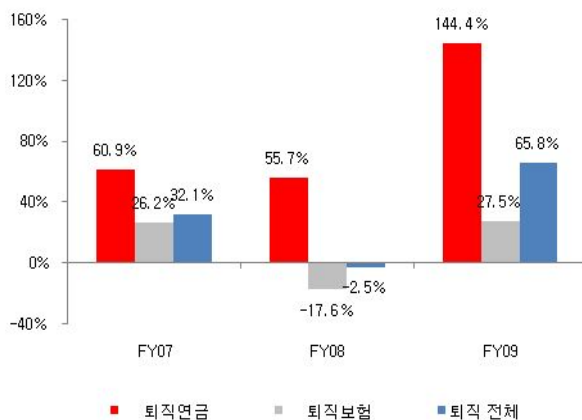


자료: 손해보험회사, 『업무보고서』, 각 월호

□ 퇴직연금은 제도가 도입된 FY2005 이후 지속적인 성장세를 시현하였으나, 금융권 역별에서 손해보험회사의 점유율은 오히려 감소하는 등 퇴직연금시장에서 손해보험회사의 경쟁력이 지속적으로 위축되고 있음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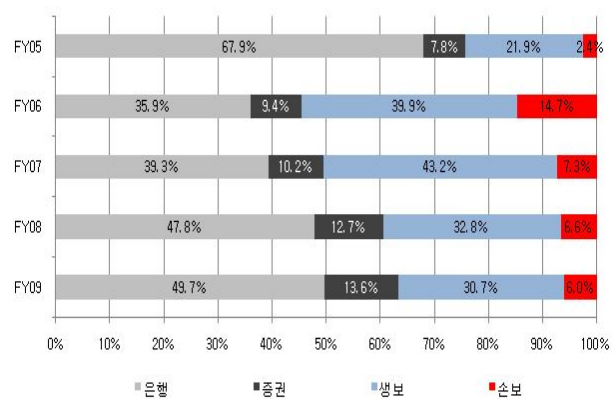
- 퇴직연금의 원수보험료는 금년 말로 예정된 퇴직보험의 제도 개정을 앞두고 퇴직연금 전환 및 신계약이 크게 늘어나면서 전년대비 144.4% 급증한 8,119억원을 시현함.
- 그러나 손해보험 퇴직연금 시장의 고성장에도 불구하고 적립금액 기준 손해보험회사의 점유율은 6.0%에 머물며 가장 낮은 비중을 차지함.

<그림 7> 퇴직연금/보험 성장률 추이



자료: 손해보험회사, 『업무보고서』, 각 월호

<그림 8> 퇴직연금 권역별 점유율 추이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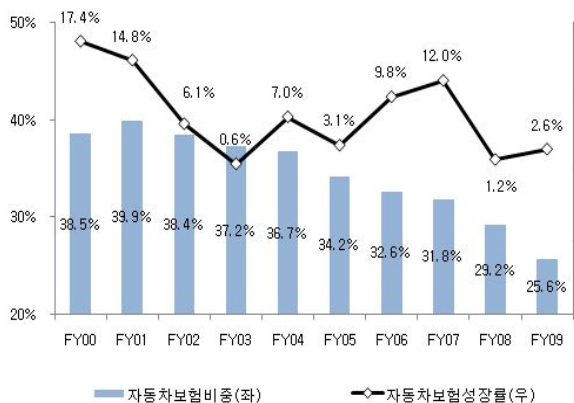
주: 적립금액 기준임

자료: 금융감독원, 『퇴직연금 영업실적 현황』

□ 손해보험에서 자동차보험이 차지하고 있는 영향력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며, 가격 경쟁도 심화되어 있어 더 이상 보험회사 자체적인 노력으로 시장의 규모를 확대시키기는 어려운 구조인 것으로 판단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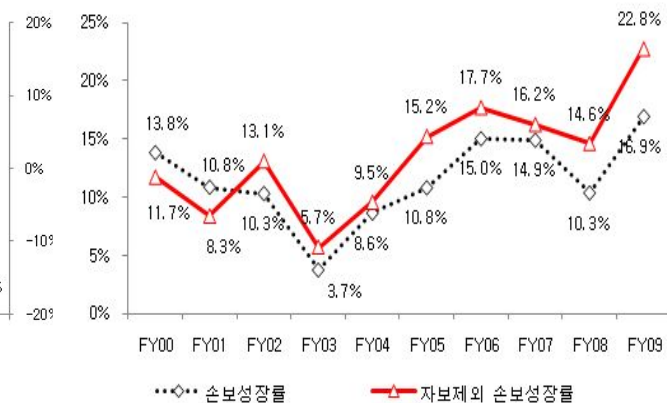
- 자동차보험이 손해보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5.6%로 FY2001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함.
- 자동차보험의 포함여부와 관계없이 손해보험 원수보험료 성장률 형태가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어 자동차보험의 성장이 전체 손해보험 성장에 기여하는 정도는 낮은 것으로 보임.
- 자동차보험시장은 가격경쟁 심화로 더 이상 과거와 같은 고성장을 기대하기 어려워지고 있으며, 시장의 성장 및 축소는 보험회사가 통제하기 어려운 경기변동, 자동차등록대수, 대형차 및 수입차 비율 등과 같은 외생변수에 의해 영향을 크게 받고 있음.

<그림 9> 자동차보험 비중 및 성장률 추이



자료: 손해보험회사, 『업무보고서』, 각 월호

<그림 10> 자동차보험 성장기여도 추이



자료: 손해보험회사, 『업무보고서』, 각 월호

## 나. 사업비

□ FY2009 손해보험 순사업비 총액은 9조 3,049억원으로 전년대비 5.9% 증가함.

- 손해보험의 모든 종목에서 순사업비 증가율이 전년도에 비해 크게 감소함.
- 일반손해보험과 장기보험의 경우 원수보험료 성장률보다 순사업비 증가율이 낮은 반면, 자동차보험 순사업비는 원수보험료 성장률보다 높은 3.4% 증가한 3조 3,007억원을 나타냄.

<표 1> 종목별 순사업비 및 증가율

(단위 : 억원, %)

회계연도	자동차보험		일반손해보험		장기보험		전 체	
	금액	증가율	순사업비	증가율	순사업비	증가율	순사업비	증가율
FY2007	29,742	10.5	13,039	17.5	31,194	25.6	73,975	17.7
FY2008	31,917	7.3	11,208	-14.0	41,160	31.9	87,834	18.7
FY2009	33,007	3.4	10,983	-2.0	45,547	10.7	93,049	5.9

주: 전체 순사업비는 개인연금, 퇴직보험, 퇴직연금을 제외한 수치임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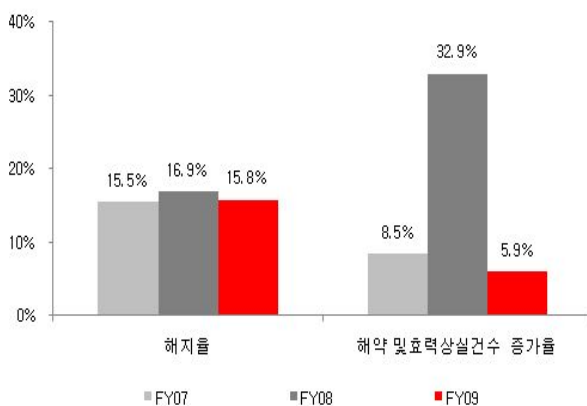
자료: 손해보험회사, 『업무보고서』, 각 월호

### 다. 해지율과 손해율

□ 장기보험의 해지율<sup>3)</sup>은 신계약 증가 및 해약·효력상실 금액 증가율 둔화 등에 힘입어 15.8%를 나타내면서 금융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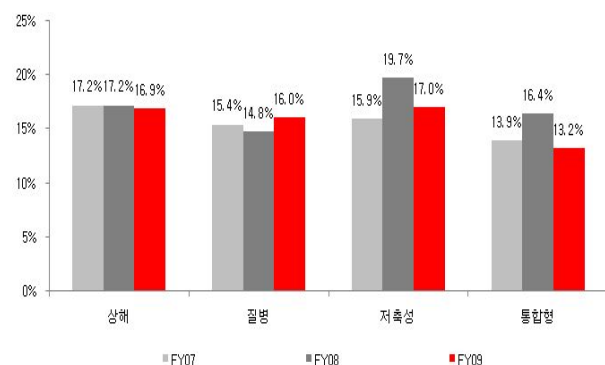
- 작년 금융위기 여파로 급증했던 장기보험의 해약건수가 감소세로 전환되고, 효력상실 건수도 전년대비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면서 해약·효력상실 금액이 큰 폭으로 감소함에 따라 해지율이 낮아짐.
- 질병보험을 제외하고 대부분 종목의 해지율은 전년대비 감소했으며, 대형사들을 중심으로 해지율 안정화 추세가 강하게 나타남.

<그림 11> 장기보험 해지율 및 해약·효력상실건수 추이



자료 : 손해보험회사, 『업무보고서』, 각 월호

<그림 12> 장기손보 종목별 해지율 추이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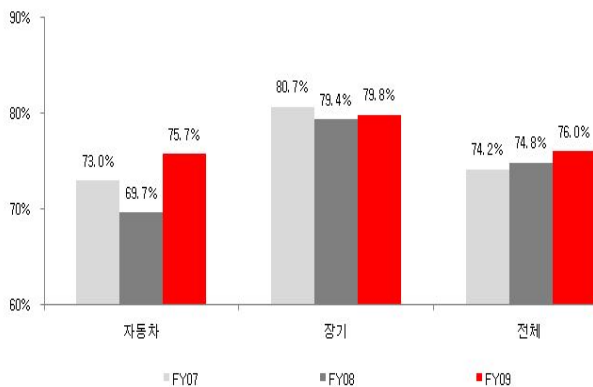
자료 : 손해보험회사, 『업무보고서』, 각 월호

3) 해지율 = (효력상실액+해지액)/(연초보유계약액+신계약액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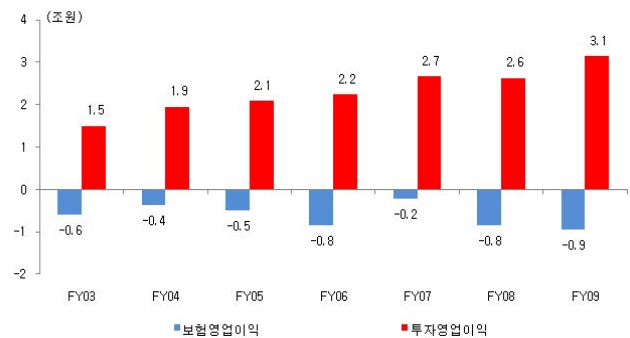
□ FY2009 전체 손해보험 손해율<sup>4)</sup>은 장기성보험과 자동차보험의 손해율 악화로 전년 대비 1.2%p 높아진 76.0%를 나타냄.

- 2009년 하반기에 경기가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면서 차량운행이 증가하고, 겨울철 폭설 등의 기상악화로 사고발생률이 높아져 손해율이 크게 악화됨.
- 장기보험의 경우 신종플루의 발생으로 보험금 지급액이 크게 증가하였으나, 보험료 수입 급증으로 인해 전체 손해율은 소폭 상승에 그침.

<그림 13> 자동차·장기·전체 손해보험 손해율    <그림 14> 보험영업이익 및 투자영업이익 추이



자료: 손해보험회사, 『업무보고서』, 각 월호



자료: 손해보험회사, 『업무보고서』, 각 월호

### 3. 수지현황

□ 손해보험산업의 당기순이익은 보험영업이익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투자영업에서 흑자폭이 확대되면서 전년대비 17.6% 증가해 금융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함.

- 보험영업이익은 장기성보험의 실적 호조에 따른 경과보험료 증대로 보험영업수익이 전년대비 14.4% 증가했으나 손해액, 장기저축성적립금 등의 비용도 증가하여 9,365억원의 적자를 기록함.
- 투자영업이익은 투자영업수익이 전년대비 2.0% 증가에 그쳤으나, 파생상품 및 매도가능증권·채권 관련 비용의 급감으로 투자영업비용이 27.6% 감소한 데 힘입어 3조 1,413억원의 흑자를 시현함.

4) 손해율 = 발생손해액/경과보험료

- 손해보험회사들의 자산운용규모는 전년대비 15.7% 증가<sup>5)</sup> 한 반면 투자영업수익은 약 2% 증가에 그쳐 장기적인 저금리 기조로 인해 투자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.
- 즉, 과거에는 투자영업수익의 증가가 투자영업이익의 증가로 연계된 반면, FY2009에는 투자영업비용의 감소를 통해 투자영업이익의 증가를 시현함.
- o 당기순이익의 증가로 총자산이익률(ROA)과 자기자본이익률(ROE)은 전년대비 각각 0.3%p, 0.2%p 상승한 4.6%, 13.2%로 나타남.

<표 2> 수치 현황표

(단위: 억원, %, %p)

항 목	FY2008	FY2009	전년대비	
			증감분	증감률
보험영업수익	356,806	408,165	51,359	14.4
보험영업비용	365,299	417,530	52,232	14.3
- 손해액	143,675	162,340	18,665	13.0
- 장기환급금	78,937	77,999	-937	-1.2
- 손사업비	89,757	96,290	6,533	7.3
- 장기저축성적립금증가액	49,442	76,478	27,036	54.7
- 배당준비금증가액	260	589	329	126.2
- 비상위험준비금증가액	3,227	3,834	606	18.8
보험영업이익	-8,492	-9,365	-873	10.3
투자영업수익	41,704	42,559	855	2.0
투자영업비용	15,398	11,146	-4,252	-27.6
- 재산관리비	2,804	2,733	-71	-2.5
- 매도가능채권감액손실	1,719	1,323	-396	-23.0
- 매도가능증권처분손실	1,533	990	-542	-35.4
- 파생상품평가손실	1,705	118	-1,588	-93.1
- 파생상품거래손실	3,387	633	-2,754	-81.3
- 기타비용	4,250	5,349	1,099	25.9
투자영업이익	26,307	31,413	5,106	19.4
기타이익	-46	-1,335	-1,288	2,775.6
법인세비용	4,661	5,299	638	13.7
당기순이익	13,107	15,414	2,307	17.6
총자산이익률(ROA)	4.3	4.6	0.3	-
자기자본순이익률(ROE)	13.0	13.2	0.2	-

자료: 금융감독원, 『금융통계정보시스템』, 각 월호

5) 손해보험회사 『업무보고서』의 (총자산규모×일반계정비율×운용자산비율)을 이용해 계산

#### 4. 시사점 및 과제

- 현재 손해보험산업은 장기보험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가운데, 실손의료보험의 신계약이 급감하고 있어 장기적인 성장성 제고를 위해서는 새로운 성장 동력 마련이 절실함.
  - 장기보험에 대한 의존도가 높을 경우 장기보험 시장의 정체가 손해보험 전체 시장의 정체로 연계될 가능성이 높음.
  - 또한 장기보험의 손해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어 장기적으로 보험영업의 수익성이 더욱 악화될 개연성이 있음.
  - 따라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손해보험시장의 지속성장을 위해 다양한 보험 종목들의 균형적인 성장을 유도해야 함.
    - 자동차보험시장은 이미 정체된 시점에 도달한 것으로 판단되며, 외생변수에 대한 시장성장 의존도가 높아 손해보험시장의 지속성장을 위한 자동차보험시장의 역할은 축소되고 있음.
    - 특히, 자동차보험 전문판매회사들은 상품라인업을 다양화하여 리스크를 분산시킬 필요성이 있음.
    - 일반손해보험의 경우에도 잠재시장 수요를 발굴할 수 있는 종목에 대한 집중적 투자가 필요함.
    - 국내 손해보험 시장의 정체를 대비하여 이익 창출의 새로운 전략적 방안의 하나로 해외진출에 대한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함.
  
- 장기손해보험의 지속성장을 위해 기존의 계약자를 활용한 부가서비스를 개발할 필요가 있으며, 수익성 제고를 위해 언더라이팅 및 효율체계의 선진화가 필요함.
  - 실손의료보험의 신계약이 급감하고 있어 건강보험의 매출 증대 노력과 함께 건강관리(Healthcare) 서비스와 같은 관련 부가서비스를 접목시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할 필요가 있음.
  - 건강보험은 손해율수준이 높고 보험금 지급에 대한 추정 또한 쉽지 않기 때문에 언더라이팅 및 효율체계의 선진화를 통해 수익성을 제고시키는 노력을 지속해야 함.
  
- 퇴직연금시장에서는 타 금융권보다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낮기 때문에 시장을 세분화하고 특정 시장에서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전략을 활용할 필요가 있음.
  - 손해보험회사는 현재 확정급여(DB)형 중심의 퇴직연금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

하지 못하고 있어 장기적으로 성장여력이 높은 확정기여형(DC) 및 개인퇴직계좌(IRA)에 특화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.

- 주요국의 경우에도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된 초기에는 DB형을 중심으로 시장이 형성되다가 점차 DC형 및 IRA시장이 DB형시장의 점유율을 추월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.

○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의 니즈에 부합하는 서비스를 개발하고 선제적 마케팅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전략이 요구됨.

- 근퇴법 개정안에 따르면 중소기업 위주의 DC형 그리고 이직자 및 자영업자 위주의 IRA가 급성장할 가능성이 높음.

□ 손해보험은 보험영업에서 지속적인 마이너스 이익을 내고 있어 투자영업 성과의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투자수익률을 제고시키고 효율성을 개선시키는 노력을 지속해야 함.

○ 보험영업 부분에서 적자를 면하지 못하는 상황이 고착화됨에 따라 투자영업 성과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.

○ 따라서 투자수익률을 제고시키는 동시에 투자수익률 변동성을 감소시키는 노력을 지속해야 함.

- 특히, 현재와 같이 저금리 기조이면서 금리가 인상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차역마진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금리가 충분히 인상될 때까지 단기 위주의 자산운용이 필요하고 다양한 투자처의 적극적 개발이 요구됨.

- 중장기적으로는 상품개발 시점부터 자산부채매칭(ALM)을 통한 자산운용을 고려하여 상품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.

○ 일부 보험시장이 정체되고 저금리기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는 보험영업 및 투자영업에서 비용측면의 효율성 증대가 절실히 요구됨. KiRi